

# 동네슈퍼서 싸고 신선한 지역농산물 판매

### 중기청 '나들가게 로컬푸드 공급' 광주서 첫 시범운영

### 136개 가게 참가...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유통비 절감

3살과 5살 배기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주부 박모(36)씨. 아이들에게 항상 질 좋은 간식거리를 먹이기 위해 채소와 과일 구매는 차로 30여분이 걸리는 광주 서구 각화동 농산물 공판장을 이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집앞 골목 슈퍼마켓에서 싼값에 신선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로컬푸드'(Local Food)를 '나들가게'에서 직접 판매하게 된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일 이달부터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싸게 공급하기 위한 '나들가게 로컬푸드 공급'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나들가게 협의회가 주도하고, 인근 200여 곳의 농가가 참여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에서는 414개 나들가게 가운데 수요조사를 거쳐 참가를 희망한 136개 나들가게에서 로컬푸드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로컬푸드란 장거리 이동을 거치지 않은 반경 50km 지역 내의 농산물로,

생산자·소비자 간 거리를 좁혀 신선도 유지와 저렴한 가격에 공급가능한 것이 특징. 시범 사업은 생산자 조직과 소매업자 조직 등이 협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와 마진을 대폭 줄여 대형 마트 공급가의 80~90% 가격으로 골목슈퍼에 공급하도록 했다. 생산자가 중간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나들가게로 직접 공급해 유통단계 축소는 물론 유통비 절감으로 공급 단가를 인하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중소기업청은 골목슈퍼 전문지도사를 파견, 판매 지도와 함께 폐기물 줄이기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골목슈퍼 전문지도사를 파견, 판매 지도와 함께 폐기물 줄이기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중소기업청은 골목슈퍼 전문지도사를 파견, 판매 지도와 함께 폐기물 줄이기 운동도 함께 추진한다.



2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나들가게에 채소와 과일 등이 진열돼 있다. 나들가게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채소와 과일은 업주가 직접 농산물공판장 및 도매상에서 사오던 것이었지만, 이월부터 중소기업청의 '나들가게 로컬푸드' 사업을 통해 대형마트보다 저렴한 가격의 신선한 농산물이 직접 공급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책'의 하나이다. 생산자는 판로를 확대하고, 나들가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싸게 공급받아 상품구색 강화를 통한 매출상승과 소비자와의 신뢰가 강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광주지역의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대구와 인천, 부산 등에 대한 선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에 추가로 1곳을 운영하고, 내년에는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한국차 3월 美 판매 호조 기아차 전년비 12% 늘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판매에 대비감이 불었다. 1일(현지시간)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이 발표한 판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 3월 미국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는 12만1782대가 팔려 작년 같은 기간 11만7431대보다 3.7% 늘어났다. 한국 자동차는 지난해 2월에는 판매 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한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기아차와 현대차의 회복은 엇갈렸다. 기아차는 3월 한달 동안 5만4777대의 자동차를 팔아 지난해 3월보다 11.5% 늘었다.

성장세가 주춤하던 주력 모델 옵티마(한국 판매명 K5)가 1만6310대나 팔려나가면서 작년 3월 대비 13.5% 급증한 것이 3월 판매 호조를 이끌었다. 옵티마는 미국 진출 이후 한달 판매 신기록을 세웠다. 기아차의 효과 모델 쏘울도 1만3992대가 판매돼 15.8% 성장했다. 쏘울 역시 미국에서 일간 최대 판매대수를 기록했다. 배기량 5000cc 고급 승용차 K900

(한국 판매명 K9)는 출시 첫달인 3월에 105대가 팔려 가능성을 확인했다.

반면 현대차는 3월에 6만7005대가 팔려 작년 같은 기간보다 1.9%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6%가 줄었던 2월보다는 사정이 나아진 게 그나마 위안이 됐다. 작년 3월에 2만6153대를 팔았던 엘란트라(한국 판매명 아반떼)가 2만1518대로 줄어든 것이 발목을 잡았다.

그때도 소나타가 1만9248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늘어나면서 주축 모델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싼타페가 36.7% 늘어난 9천726대가 팔린 것도 힘이 됐다. 두 회사 모두 지난 2월에는 폭풍과 폭설 등 미국 중동부 지역을 강타한 악천후 탓에 판매가 부진했다.

현대차 미국법인 볼 브래드진스키 판매 담당 부사장은 "3월 초반에도 동부 지역 일기 불순으로 고전했지만 3월 후반부터 회복됐다"면서 "4월에는 커다란 판매 신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아차는 4월 한달간 K시리즈(K3, K5, K7, K9)와 R시리즈(스포티지R, 쏘렌토R, 카니발R)를 출고한 고객에게 봄나들이에 필요한 경품을 증정하는 'K·R시리즈 타고 KoRea 여행가자'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아차 제공)

# 압생트·에프왈XO·다카시미즈 등 하이트진로 해외명주 4종 국내 판매

하이트진로는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유럽에서 인기를 끌지만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주류를 국내에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하이트진로의 수입주류 포트폴리오에 추가되는 주종은 리큐르인 '압생트'(Absinth), 브랜드 '에프왈XO', 사케 '다카시미즈' '아미노토', 에너지 맥주 '믹서리'(Mixery) 등이다.

'초록마주', '악마의 술'로도 불리는 압생트는 알코올 도수가 70도에 달하는 고농도 리큐르다. 코리엔더, 아니스 등 허브 추출물로 제조한 대표 고도주로 20세기 전후 유럽 예술가들 사이에서 낭만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술로 유행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체코의 오리지널 압생트인 '킹 오브 스피릿'(King of spirits, 375ml)을 들여와 판매한다.

에프왈XO는 과실주를 종류한 브랜드다. 부드러운 포도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 프랑스 보르도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포도를 엄선해 숙성에서 블렌딩까지 모든 단계에서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제조된다.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독일산 에너지 맥주인 '믹서리'(알코올 도수 5도)는 맥주와 에너지 드링크를 80대 20 비율로 혼합한 제품이다.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카페인 들어 있다. 국내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생산량 1위인 사케 다카시미즈는 일본 전국신주감광회에서 14년 연속 금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아마노토는 일본 현지 이자카야에서 가장 인기있는 브랜드다. 준마이 계열의 사케로 농약을 억제한 유기 비료로 특별 재배한 쌀을 사용해 품질이 우수하다. /연합뉴스

# 정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조정 착수

### 새로운 사치품 부과...총포·농용 등 제외 검토

정부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로운 사치품에 과세하거나 세수실적이 미미한 기존 항목은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연구용역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개소세는 1977년에 사치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사치세'다.

정부가 개소세 과세 대상을 조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에 맞춰 그때그때 세법을 개정했다. 가령 2000년 컬러TV, 사탕, 청량음료

에 붙던 개소세를 폐지하고 석유가스, 골프장 및 카지노 입장에는 새로 개소세를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명품백'을 사치품으로 보고 수입가격 200만원 이상 가방에 200만원 초과 금액분의 20%를 개별소비세로 부과하고 있다.

기재부는 "수렴용 총포 등 세수 규모가 작은 품목과 농용, 로열젤리 등 식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반면, 새로운 고가 사치품에 대해서는 추가 과세의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수실적이 미미한 항목은 많다. 수렴용 총포류의 2009~2011년 개소세 세수 실적은 모두 3억8100

만원에 그쳤다. 이 가운데 국내분 실적은 0원이었다. 같은 기간에 고급 사진기의 세수 실적은 50억6800만원이며 모두 수입분에 매긴 개별소비세였다.

농용과 로열젤리의 개소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국내분에 각각 400만원, 100만원이 산출됐을 뿐이며 2009~2011년 세수 실적(71억9천900만원)의 대부분이 수입품에 세금이 매겨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법을 개정할 지 오래인데다 관련 업계에서 (폐지해달라는) 요청이 자주 나와 들여다보는 중"이라며 "미국, 프랑스, 일본, 대만 등 주요국 사례를 비교해보고 연구용역 결과가 수용할 만하면 일부 받아들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97.25 (+5.27)	▲ 코스닥지수 557.65 (+8.57)	▲ 금리(국고채 3년) 2.88% (+0.01)	▼ 원·달러 환율 1056.60원 (-1.90)
----------------------------	---------------------------	-------------------------------	-------------------------------

골프, 등산, 술... 이제 걱정 끝!!!

## 지친 당신에게 권합니다.

3월 출시

제품명: 간면애    식재료유형: 다류역식차    원재료명 및 함량: 황칠추출물(100%)  
 제조원: **황칠나라(주)**    판매원: **황칠나라**    전년 징중공 징용을 해경리 651-3    고객센터: 061864-5788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제품, 판매처는 고객센터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고객센터 **061 864 5788**  
www.hcnara.co.kr